구례군,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 개최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

다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4마당 29종목 군민의 날 행사 열려

구례군은 오는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남악사 및 화엄사 시설지구, 공설운동장 등 구례군 일원에서 「제81회 지리산남악제 및 제44회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 4마당 29종목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구례읍 시가행진과 군민의 날 체육행사, 군민 노래자랑, 남악제례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 전시·체험, 경연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첫째 날인 19일(토)에는 군청에서 시작해서 공설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구례읍 시가행진으로 진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어서 공설운동장에서는 읍면별 특색 있는 입장식을 시작으로 군민의 날 기념식이 이어지며 이후 본격적으로 줄다리기, 400m 계주, 족구, 축구, 게이트볼, 씨름, 단체줄넘기, 파크골프, 한궁 시범경기까지 9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기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재경구례군향우회에서 200여 명의 향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줌에 따라 향우 vs 기관·사회단체장의 번외경기로 친선 줄다리기 경기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후 저녁 7시부터는 군민의 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군민 노래자랑이 열린다.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12명의 본선 진출자의 뜨거운 경연이 펼쳐지고, 재경구례군향우회원의 특별무대와 '지원이' 등 초청가수의 축하공연으로 행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다음날인 20일(금) 오전 10시에는 천 년의 역사 동안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기원한 남악제례가 남악사에서 봉행 되고, 이후 장죽전 녹차 시배지에서는 헌공다례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화엄사 시설지구에서는 길거리 씨름대회, 읍면 윷놀이 대회, 농악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체험과 우리차 시음회, 전통 떡 만들기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한국사진작가협회 구례지부의 작품 전시회와 같은 문화예술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18일부터 24일까지 구례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는 한국미술협회 구례지부의 전시회를 볼 수 있으며, 20일(일) 오후 3시에는 구례읍 실내체육관에서 추억의 동춘서커스 공연이, 오후 5시에는 섬진아트홀에서 북한의 독특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백두한라예술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21일(월)에는 제34회 전국 정가 시조경창대회가 열려 전국의 시조 명창분들이 구례를 찾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을 갖는다.

더욱이, 군민의 날 기념식 시작 전에는 구례 청천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로 이루어진 치어리딩 팀이 식전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이번 행사는 구례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남악제례 및 헌공다례를 관람하고 남악 서예 백일장, 남악제 글짓기, 내 고장 문화재 그리기 대회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초등학생 대항 윷놀이와 길거리 씨름대회에 참여 모집을 하는 등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가 될 예정이다.

최성현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장은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를 통해 구례군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7일(월) 행사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가 유구한 역사를 가진 행사인 만큼 단순한 축제가 아닌 구례가 하나로 단합하고 구례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2025 화순 공정식 전국 가요제 개최

12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 '예선'

19일 16시 하니움 공설운동장… 1부, 2부 본선 경합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5 화순 공정식 전국 가요제가 오는 4월 19일 토요일 16시부터 화순 하니움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개최된다.

'공정식 전국 가요제'는 가수 김용임의 '부초같은 인생', '적벽 가는 길' 등을 작곡한 화순 동면 출신 공정식 작곡가의 대중가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여 진행되는 전국 단위의 가요제이다.

4회째를 맞은 올해는 '2025 화순 봄꽃 축제 개막기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식 전국 가요제는 2025년 4월 12일(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진행하는 예선을 거쳐, 4월 19일(토) 16시부터 하니움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식전 행사와 1부, 18시부터 2부 순으로 본선을 진행한다. 가요제 본선에서는 예선을 통해 선정된 본선 진출자들의 경연 무대와 함께 김용임, 김용필, 신성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으로 관객들의 흥을 더욱 북돋울 예정이다.

이번 가요제 우승 대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공정식 작곡가가 손수 작곡한 신곡(1곡)을 부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 인기상 30만 원과 화순11경 상 20만 원이 차례로 주어진다.

참가 자격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4월 11일까지 이메일(king1004_@naver.com)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접수 문의는 010-5891-5224(화순 공정식가요제 추진위원회)로 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삼영 문화예술과장은 "방문객들이 '2025 화순 봄꽃 축제 개막식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공정식 전국 가요제를 시작으로 축제 기간 내내 더욱 풍성한 봄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이번 가요제에 많이 지원하셔서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화순/김종환 기자

함평군, 황금박쥐상 제작 변건호 작가 기획전… 4월 8일 개막

함평군립미술관, 5월 25일까지 특별전 운영… 조형물과 회화작품이 전하는 '생명과 예술'

전남 함평군은 생명과 예술의 근원적 메시지를 담은 변건호 작가의 기획전 '생명과 예술'을 개최한다.

함평군은 7일 "변건호 작가의 기획전 '생명과 예술'이 함평군립미술관에서 4월 8일부터 5월 25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황금박쥐상을 제작한 변건호 작가가 평생에 걸쳐 탐구해 온 생명의 탄생과 소멸, 혼돈과 질서 등 근원적 주제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조명하는 자리다.

변건호 작가는 1948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금속조형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함평군의 의뢰로 황금박쥐상을 제작했다.

변 작가는 생명이 지닌 유한성과 영속성, 그리고 혼돈과 질서의 관계를 조형적으로 탐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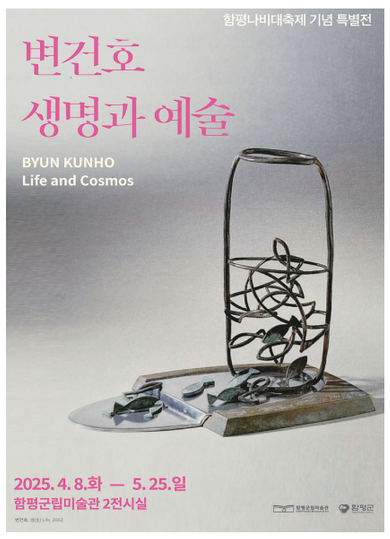
대표작 '생명 시리즈'에서는 생명의 흐름과 소멸의 과정을 링거병, 불꽃, 물고기 등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며 금속 조각들로 유기적이면서도 구조적인 형태를 구축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변 작가의 조각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시도한 회화작품도 함께 선보이며 확장된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다.

변 작가는 조형물을 촬영한 후 아크릴과 색연필, 금박 등을 덧입히는 기법을 활용해 생명의 순환과 우주의 질서를 평면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올오버 페인팅 기법과 다양한 재료 사용을 통해 생명의 의미를 더욱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함평군은 전시와 더불어 작가의 삶과 예술세계, 그리고 황금박쥐상 제작의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변건호 작가와의 대화'를 4월 23일 오후 2시 30분 함평군립미술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변건호 작가는 조각과 회화를 넘나들며 생명의 근원과 그 순환적 속성을 탐구해 왔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생명과 우주의 본질에 대한 그의 깊은 철학적 질문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전남도립도서관, 도민 책 읽는 문화 확산 나서

4월부터 시군도서관과 함께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전라남도립도서관은 도민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4월부터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전남도 올해의 책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역작가 문학강좌'는 공공도서관과 협력해 시군 도서관, 작은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문학 창작 프로그램이다. 올해 목포시립도서관, 여수시립이순신도서관, 순천시립신대도서관, 구례군매천도서관, 강진군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서 강좌가 열린다. 완성된 작품은 문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작은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 전문 강사가 책과 연계한 미술놀이, 독서토론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 구례 1개관으로 시작해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목포, 여수, 순천, 구례, 무안, 신안 내 작은도서관 15개 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취약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로 찾아가 장애인, 보호시설 아동,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서 테라피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강진, 해남, 무안, 영광, 완도 내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서 진행된다.

/김명수 기자